



7·30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권은희 후보가 당선에 확정되자 지지자들과 두손을 맞잡고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주·화순선거에서 승리한 신정훈 당선자가 양손에 꽃다발을 들고 당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담양·함평·영광·장성선거에서 80% 넘는 득표율을 얻은 이개호 당선자가 지지자들과 함께 활짝 웃고 있다.

광주 광산을 권은희 투표율 22.3% 득표율 60.6%

나주·화순 신정훈 투표율 34.6% 득표율 62.4%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투표율 31.6% 득표율 81.3%

“국정원 대선개입·세월호 실체적 진실 꼭 밝혀내겠다”

-당선 소감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광산구민, 광주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광산구민들의 삶을 여유롭고 편리하게 만드는 생활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끝까지 맞서고 있는 시민들의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승리 배경 및 투표결과로 본 민심을 어떻게 보나.
 ▲국민을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제대로 견제하라는 주문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광주시민과 광산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광주정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
 다른 지역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주권자인 광산구민의 마음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투표장을 떠난 구민들이 다시 투표하고 싶게 만드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민심을 받아들여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경찰 퇴직 한달여 만에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정치인으로서 20일은 어땠나.
 ▲국민들은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내린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아울러 우리끼리 열심히 하는 것 못지않게 주권자인 국민과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게 절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선거기간동안 보내주신 따듯한 질책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보답하겠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연이은 공천문제로 많은 당원들과 광주시민들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

었다. 짧은 시간동안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더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 조용히 지역 곳곳을 발로 뛰었다. 하지만 20일이라는 기간은 마음을 여는데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선거운동 기간 가졌던 마음가짐으로 다시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나겠다.
 -선거운동 기간 만난 주민들의 요구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제가 약속드린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를 보여드리겠다.
 -지역을 잘 모른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이 있나.
 ▲광산을 지역은 평균 연령이 32세 이하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다. 특히 아파트 주거비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도시화가 빠르다.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주거·보육·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다. 눈에 보이는 대규모 시설 유치보다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정치 이슈를 찾아 차분히 풀어가겠다.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은.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이들을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다. 국민과 함께 세월호 참사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1974년생(40) ▲전남대 법과대학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변호사

“소통·통합의 상생정치 복원 호남 바꾸는 새희망 심겠다”

-당선 소감은.
 ▲새정치와 변화를 염원하는 시·군민의 승리라고 본다. 살기 좋은 화순과 나주를 만들어 반드시 보답하겠다.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내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 시·군민이 주인이 되는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를 실천하고, 농민과 서민의 곁에서 신명을 바치는 그런 일꾼이 되겠다.
 -승리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진정성이 통했다고 본다. 화순과 나주를 바꿔 호남을 바꾸고, 호남을 바꿔 대한민국을 혁신하자고 얘기했다. 가난한 농민과 서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호소했다. 지킬 수 없는 거짓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치열하게 민생정치와 지방분권을 실천해 온 능력 있는 일꾼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을 무시하고 반성이 없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심판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드렸다.
 -평소 호남정치의 새로운 희망이 되겠다고 했다.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새정치의 핵심가치는 민생정치와 지방분권이다. 그런 새정치의 가치를 가장 앞장서 실천하면서 호남의 개혁정치를 복원해 내야 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소통과 통합의 상생정치를 이루어 낼 것이다. 쌀 개방과 한중 FTA로 벼랑 끝의 위기에 처한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지켜내겠다.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를 만들어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화하겠다.

그리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은.
 ▲화순은 생태의로 복합산업단지 조성, 전남대 의대 조기 이전 그리고 국가백신지원센터 유치를 통해 백신산업특구이자 아시아 최고의 백신허브로 만들어 화순 지역경제의 백년대계를 완성해 내겠다.
 또한 무등산, 안양산, 만연산, 적벽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건강 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농업의 중심도시로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들겠다. 혁신도시를 유지했던 열정과 신념으로 화순의 발전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나주는 16개 공공기관의 완벽한 이전과 함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읍성권의 4대문과 관아터의 복원을 통해 호남제일의 역사문화도시로 만들겠다. 나주와 영산포, 남평 등 구도심의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상권과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호남정치의 새로운 희망이 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 지난 10년동안 나주·화순을 분열로 몰고 간 갈등의 정치를 청산하고 소통과 통합의 민주적 정치문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964년생(49)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민선 3·4기 나주시장 ▲자치분권 전국연대 상임대표

“민생 살피는 따뜻한 정치 농촌 지키는 파수꾼 되겠다”

-당선 소감은.
 ▲고맙다. 큰 은혜 결코 잊지 않았다. 저의 오랜 꿈이었던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늘 저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오직 한길로 나아가 갈 것을 굳게 약속한다. 과분한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열심히 일하는 좋은 국회의원이 되겠다.
 -당선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가슴 따뜻한 선거운동’에 나선 게 주효했던 것 같다. 특히 농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며 고민했던 점이 농업인들에게 후한 점수를 받은 것 같다.
 -향후 포부는.
 ▲가슴 따뜻한 정치를 하겠다. 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민생을 돌보겠다. 또 농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쌀개방, FTA 등 위기의 농업 현실 앞에서 농업·농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다하겠다. 저에 대한 선택은 보다 더 잘사는 담양·함평·영광·장성을 만들라는 지역민의 명령이라 생각해 온 힘을 다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 의정활동을 할 생각인가.
 ▲이념·지역·세대를 넘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가는 ‘생활정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 또 땅의 모든 결정을 당원이 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를 활성화 하겠다. 특히 필요할 때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하고 소신있는 초선 의원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돼서 최우선적으로 추진 할 일이 있다면.
 ▲쌀산업을 지키는 농업·농촌 파수꾼 역할을 하는 한편 ‘전남 서북 4군 경제활성화 및 취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또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조기 제정과 제2 남도고속 건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국회에서 연다는 관행을 바꿔 4개 군을 순회하며 지역 현안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민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지역구의 현안이 있을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상임위를 반드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배정받아 위기에 처한 농림·축산·수산업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4개 군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비전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원 및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담양의 첨단문화복합단지, 함평의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영광의 대마산단, 장성의 나노산업단지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국가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어르신과 여성,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 나아가 담양의 무정~옥과 4차선 확장, 함평 국도 24호선 확·포장, 영광의 영광~염산 확·포장 등 아직도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1959년생(55) ▲전남대 경영학과 ▲제24회 행정고시 ▲전남도행정부지사

아-미-미! 미리미리 우리집 전기안전 점검해요!

매월 4일은 전기안전점검의 날

생활 속의 전기안전요령 이렇게 하면 됩니다

- ▶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이상 점검합니다.
- ▶ 전선이나 차단기는 적정용량에 맞게 사용합니다.
- ▶ 낡은 전기시설은 즉시 교체합니다.
- ▶ 문어발식 전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 ▶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습니다.
- ▶ 비올 때 가로등, 신호등, 옥외광고물 등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 ▶ 건설공사를 하거나 이삿짐을 옮길 때는 고압선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전기안전 파수꾼 미어캣 '미리'

전기안전 선도기업, 최첨단 고력, 신기술을 앞세워

KESCO 한국전기안전공사

www.kesco.or.kr

전기안전 119 1588-7500

전기안전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 blog.naver.com/kescomiri